

지역 소식통

정읍시 3단계 상생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정읍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정읍시는 오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2023년 정읍형 3단계 상생 일자리 사업 참여자 138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정읍형 상생 일자리 사업은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공공 일자리를 발굴해 취업 취약 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번 3단계 사업은 9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된다.

만 60세 이하의 주 30시간, 만 61세 이상은 주 15시간 근무하게 된다. 시급은 9820원이며 하루 5000원의 부대 경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나이에 따라 4대 보험이 의무 가입된다.

모집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9세 이하 정읍시민으로 가구소득과 부양가족 수 참여 횟수,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집중호우 대비

문화재 시설물 안전점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문화재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도 문화재 피해상황 점검에 나섰다.

정읍시는 오는 8월 4일까지 지역 내 문화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역 내 문화재 104개소로, 국가·도지정문화재 51개소, 등록문화재 8개소, 문화재자료 17개소, 향토문화유산 18개소, 전통시찰 10개소 등이다. 동산문화재와 무형문화재, 현재 보수를 하고 있는 문화재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점검 내용은 △소방설비(소화기, 옥외소화전, 경보설비 등) 작동상태 △누전차단기, 전선배선 상태 등 △가스용기 및 가스배관 가스차단기, 가스기기 △안전경비원 근무, 매뉴얼 및 비상연락망 비치·관리상태 △문화재 및 주변 시설의 균열, 누수, 배수로 정비상태 등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시민중심도시' 미래상 설정

정읍시, 2040년 도시기본계획 주민공청회 열고 관계 전문가와 시민들 의견 청취

정읍시는 20일 오후 3시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2040년 정읍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열고 관계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미래상과 공간구조,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도시계획의 최상위 법적계획이다.

이번에 수립하는 2040년 정읍도시기본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또 "누구나 살고 싶은 품요로운 시민중심도시"를 미래상으로 설정, 기존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공간구조를 정읍시 경쟁력 강화와 중심



지별 지속성 미련을 목표로 1도심 4지역중심 2축화해으로 재편하는 등 생활권별 발전방향 및 발전구상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는 2040년 정읍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전문가 및 시민대표의 지명토론, 시민들의 질

의답변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전북대학교 김현숙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전북대 정태연 교수, 원광대 이경찬 교수, 전북연구원 이상재 부장, 삼오기술사 박종근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북 첨단의료복합단지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내장산 관광 자원화 등 각종 현안사업과 시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도시기본계획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읍이 전북도 서남권 중심도시로서의 면모와 위상을 갖추고 살기 좋은 도시 발전하는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생산농가 소득안정 · 소비자 가계부담 최소화"

부안군, 로컬푸드 출하농가 수급안정 대책 마련

부안군은 지난 13~18일 집중호우로 로컬푸드직매장 출하 농산물 수급 불안정에 따라 품목별 수급 대책을 마련해 생산농가 소득안정 및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주부터 계속된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침수피해 등 직접 피해뿐만 아니라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생산량 저조·생육 저하 등으로 농작물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였고, 실제 18일 기준 이학수 정읍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북 첨단의료복합단지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내장산 관광 자원화 등 각종 현안사업과 시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도시기본계획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읍이 전북도 서남권 중심도시로서의 면모와 위상을 갖추고 살기 좋은 도시 발전하는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부안군은 농산물 수급 및 장바

구니 물가안정 시까지 로컬푸드 기획생산 농가에 가격 보전을 통하여 안정적인 공급 및 소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도매시장 출하가격 기준 전년 대비 150%이상 상승한 엽채류 및 근채류 등 기획생산 품목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앞으로 장마와 폭염이 반복돼 기상 영향을 크게 받는 상추, 쌈채소 등의 엽채류 생산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가 생산 현황과 수급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의 가계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는 지난 18일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특화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수해복구 집중 · 무더위 속 땀 흘리는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

심덕섭 고창군수, 부안면 복분자밭 급경사지 응급복구 현장 등 곳곳 찾아 봉사자들 격려

심덕섭 고창군수가 집중호우 수해현장을 찾아 복구 상황을 점검하며 발빠른 수해복구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20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도로침수나 토사유실 등 340여건의 크고작은 피해를 입었다.

심덕섭 군수는 이날 오전 부안면 수동리 복분자밭 급경사지 응급복구 현장을 찾아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자원봉사자들과 직원들을 격려했다.

현장은 복분자밭의 많은 진흙이 인근 도로와 배수로, 논으로 흘러내려 사람조차 오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35시간 고창대대(대대장 정현민 중령)를 비롯해 부안면 이장단협의회, 고창군여성단체협의회, 고창군자원봉



사센터, 고창군청 재무과와 부안면 직원들까지 모두 100여명이 힘을 합쳐 진흙을 제거하고, 흙을 담은 마대를 쌓아 농경지의 추가 유실을 방지하는데 합쳤다.

이외에도 이날 군청 문화예술과와 축산과가 대신면에서, 해리면 자율방재단이 해리면 행산마을 등에서 수해 복구 활동을 펼쳤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에스비푸드와 투자협약 체결

고창군이 식품원료 제조업체인 (주)에스비푸드(대표 김병수)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운영 효율성이 떨어졌던 고추종합유통센터가 새로운 주인을 맞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자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오후에 열린 투자협약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임정호 고창군의회의장, 에스비푸드 김병수 대표를 비롯한 기업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

다. (주)에스비푸드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본사를 두고 있고, 울리고당과 물엿 등을 제조하는 업체다. 고창군 고수면을 맞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부터 생산설비 120억원 투자를 시작으로 2년간 총 280억원 규모를 투자할 예정이다.

70여명의 지역내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배터이탈라계 원료인 고구마를 연간 800톤, 쌀조청 및 쌀올리고당 원료인 쌀을 연간 1000톤을 지역에서 직접 구매해 제조하면서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주)에스비푸드의 투자협약은 고창 경제의 희망을 견인하는 신호탄이 됐다"며 "기업의 고창 투자 결정이 최고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군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 · 시행계획 수립

정읍시는 지난 18일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특화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김형우 부시장과 각 국·소장, 수행기관 관계자 등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은 정읍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2022년~2026년) 수립 및 추진상황을 듣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된 중·장기계획과 연계사업 추진방안 등을 최종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청년의 꿈과 희망을 키우고 시민 모두가 행복을 나누는 새로운 시작, 희망의 정읍'이라는 비전 아래 3대 목표로 △정주인구 10만 유지 △생활인구 10% 증가 △청년인구 2만명 확보를 설정했다.

4대 전략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유출 감소 및 유입 △일자리 여건 개선을 통한 일하고 싶은 환경

구축 △보육·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자녀 키우기 좋은 도시 구축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활기 있는 도시 구축을 수립했다.

시는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18개의 실천과제와 43개의 계속·신규사업 등을 마련해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사업간 상호연계성을 고려한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형우 부시장은 "정읍시는 저출산 고령화와 사회적 이동에 따른 인구감소 심화로 지방소멸의 우려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읍민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활용해 정주인구 뿐만이 아닌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수립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정읍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